

“창작의 힘은 외로움에서 나오죠”

한혜영 시인 첫 시집 발간
‘뒷모습에 잠깐 빠졌을 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떠난지 35년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 담아

“문단에 처음 받을 들인 것이 동시조입니다. 그러나 시조는 저의 첫 사랑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내 발길을 돌려 자유시와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마음 한쪽에 시조에 대한 미안함과 시조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죠. 그런 마음이 이번 시집을 쓰게 했습니다.”



한혜영 시인

제 5회 동주해외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한혜영 시인이 첫 시집 ‘뒷모습에 잠깐 빠졌을 뿐입니다’ (가희)를 펴냈다.

동주작가상은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으로 계간 시산맥과 광주일보가 함께 운영한다.

현재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 시인은 꾸준히 창작을 할 만큼 문학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얼마 전에도 동시집을 펴냈다.

시인은 “한국에 일이 있어 잠깐 들렀다가 가는 길에 시집 출간 소식을 전한다”고 했다. 시와 동시만 쓰는 줄 알았는데 시조까지 쓰는 줄 몰랐다는 물음에 그는 그렇게 “시조는 첫 사랑이었다”고 말했다.

“저는 주제를 정해놓고 시를 쓰지 않습니다. 자칫 작위적이 될 수도 있어서요. 내키는 대로 쓰다가 묶은 시집으로 저의 내면세계를 확인하곤 합니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 담긴 작품을 작년 이맘때 썼다. 세월이 깊어진 만큼 자신의 삶을 돌아본 시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뒷모습에 잠깐 빠졌을 뿐”이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과도 무관하지 않다.

시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문득문득 뒷모습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뒷모습은 스쳐 지나오면서 보았던 타자의 모습이거나 스스로의 모습일 수 있다.

“침묵에 저 붉은 해는 어느 닭의 뺨입니까/ 날개를 갖지 못해/ 우러러만 보는 헛대/ 하늘엔 걸잡을 길 없는 불길에 번집니다// 노을을 등에 업고 절룩이며 돌아오는 / 통통 부어오른/ 하루의 발등 위에/ 오래 참아온 회개 향유처럼 붓습니다”

‘서쪽의 시간’은 삶에 대한 관조,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작품이다. 지역만리 타국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은 시인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줄 것이다.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는 피할 수 없

는 ‘서쪽의 시간’과 마주하게 마련이다.

지난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올해로 35년째를 맞은 한 시인. 1994년 ‘현대시학’ (11월호)에 시가 추천이 됐으며 199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됐다. 1989년에는 ‘아동문학연구’에 동시조로 등단했다.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펼치는 것은 “각각 어울리는 용기에 음식을 담고 싶어서”이다.

음식에 따라 그것을 담는 그릇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는 “어른 시가 담길 그릇에 동심을 담으면 뭔가 어설피고 충분해 보이지 않은 것과 같다”며 “각각 어울리는 용기에 담고 싶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압축미와 함축미를 살리고 싶을 때는 시조라는 그릇이 제격이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에서 작품활동 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힘은 외로움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이 주는 힘이다. “노천명 같은 시인은 외로워지려고 일부러 산골로 들어가 살기도 했다”는 말에서 시인에게 자발적 고립이 창작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 경우엔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적절하게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몇 달 전 시애틀로 이사를 했지만, 플로리다에 살 때는 한인도 많지 않고 정말 외로운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또한 자발적 고립에 가두기도 했지만요. 시애틀엔 가족이 많아 서 이전과 같지 않았지만 자발적 고립은 당분간 유지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시인은 계속 창작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간이 안 된 시집 원고 1권, 장편동화와 청소년 소설이 각각 한 권 분량이 있다. 그것들을 다듬으면서 당분간 불입할 생각이다.

“이번 시집을 내고 보니 틈틈이 시조를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야말로 동시집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장담은 할 수 없겠죠. 책에도 다 운명이 있으니 순리대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편 데뷔’ 김보원 감독과의 대화

광주영화영상인연대, 22일 광주독립영화관서 관객과 만남



영화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

끝없이 펼쳐진 멀티버스, 우주를 가로지르며 만나는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이야기.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김보원 감독의 장편 데뷔작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 GV(관객과의 만남) 행사를 오는 22일 오후 6시 2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연다. 김 감독이 자리해 관객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코미디 장르인 이번 영화는 끝없이 펼쳐진 다중 우주인 ‘멀티버스’를 소재로 ‘진리’를 깨우치려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다. 생물학적 한계를 깨닫고 기묘한 자율학습을 시작하는 ‘여고생(박서윤 분)’, 삶의 의미를 통찰한 듯 보이는 ‘거지(심규호)’의 험난한 여정, 진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남자 ‘진실(오동민)’이 다중 우주에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유니버스 구성이다.

먼저 ‘여고생의 기묘한 자율학습’은 한 소녀가

‘우월한 유전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펼치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거지의 왕’은 한 거지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 보여준다.

마지막 에피소드 ‘진실을 아는 자’는 타인이 불편해할 만한 진실을 떠벌리는 ‘진실’이 등장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개척해 간다. 세 이야기는 각기 다른 에피소드에서 인물이 증폭 등장하는 ‘멀티 유니버스’ 세계관을 차용했다. 진행에 신현준(독립기획자).

이상훈 이사장은 “단편영화 3편으로 구성된 유니버스 작품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의 감독을 직접 만나 질의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영화 연출, 기획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석을 권하고 싶다”고 했다.

디트릭스예매. /최류빈 기자 rubi@

광주 5대 문화콘텐츠 ‘협업 모델’ 발굴

미술·영상 등 4개 이상 기업과 팀 구성...다음달 21일까지 신청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BM(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 협업형 사업화 지원과제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하고 사업화 역량이 취약한 지역 문화예술인, 관련 소기업의 사업화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다.

디자인진흥원은 미술, 영상, 음악,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콘텐츠 분야와 연계한 협업형 비즈니스모델을 발굴, 성공적인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대표기업이 4개 이상의 기업(작가, 프리랜서 포함) 등과 협업 팀을 구성해 신

청해야 한다. 주관기업은 지역 및 업종 제한이 없으나, 5대 문화콘텐츠 분야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기업, 작가, 프리랜서 등이 70% 이상 팀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단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TV·OTT, 사행성 업종, 생체형, 개별 기업 지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유형은 미술, 응용미술, 음악·연주, 공연, 공예, 디자인, 출판 등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온·오프라인 판매·중개 플랫폼, 오프라인 공동 상설 전시판매시스템, 집적지 공동브랜드 창출, 업종간 협업 사업화 모델, 협업 창·제작 및 사업화 모델 등이다.

사업 신청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8월 21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판소리·산조 ... 전통국악의 ‘찐’ 소리

전통문화관 ‘진:소리’ 26일 개막...연말까지 매월 1회 공연

“깊고 진한 우리 소리, ‘진:소리’”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소리’를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 일원에서 펼친다. 진소리는 판소리나 산조에 쓰이는 장단 ‘진양조’에서 차용한 표현으로, ‘긴 호흡으로 느끼게 감상하는 전통 국악의 진짜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26일 서울대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영의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무대로 막을 연다.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명확한 기경결해(起景結解 맺고 풀기)와 호소력 있는 선율, 즉흥성을 담고 있어 ‘산조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곡이다. 장단은 방지원 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

이수자가 맡을 예정이다. 이어 8월 23일에는 제7회 박동진 명장·명고대회 판소리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관하경 명창의 판소리 공연이 예정돼 있다. 서편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김선임(광주사립국악관현악단 상임차석)의 해금 산조와 윤진철(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의 판소리 공연은 각각 9월 27일, 10월 25일에 선보인다. 이 밖에도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유소희·11월 15일), 보성소리 강산제 판소리 ‘심청가’(주소연·12월 6일) 무대 등이 연말까지 펼쳐진다.

전통문화관 이행동 차장은 “‘진:소리’는 관객들이 다식을 즐기면서 출연자와 함께 호흡하는 ‘국악을 위한 하우스 콘서트’다”며 “판소리와 산조의



명창 관하경

고수 방지원

향연 속에서 국악인의 삶과 이야기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화 사전접수만 가능. 선착순 40명.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